

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: 미련한 자, 게으른 자, 문제아 (잠 26:1~28)

서론

1. 25~29장은 원래 솔로몬이 지었고 유다 왕 히스기야 재위 시절에 편집된 격언들이다.
25장은 왕과 신하의 도리, 왕궁과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에 대하여 교훈하였다.
2. 26장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.

I. 미련한 자들 (26:1~12)

1. 미련한 자에게 적절한 것 (1~3절)

- 1)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적당하지 않음 (1절) ≡ ‘여름에 눈 오는 것’ ‘추수 때에 비 오는 것’
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 영광을 누리다면 그 사회는 비정상적이며 파멸을 초래할 것
- 2) 까닭 없는 저주는 효력 없음 (2절) ≡ 떠도는 참새, 날아가는 제비 (안착할 곳이 없음)
- 3)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‘막대기’ (3절) ≡ 말에게 채찍,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

2.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는 법 (4,5절):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. 동류되지 말고 어리석음 드러내라

- 1) 그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(4절): ∴ 너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.
- 2)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(5절): ∴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함
공동체를 위해 그의 말이 어리석은 것임을 드러내어야 한다.

3.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(6~10절)

- 1) 중요한 임무 맡기는 것 (‘기별하는 것’) (6절) ≡ ‘자기 발을 베어 버림’ ‘해를 받음 (마심)’
- 2) 입의 잠언 (7절) ≡ 힘없이 달려 있는, ‘저는 자의 다리’ / 가치도 쓸모도 없음
- 3) (지도자의) 영예를 주는 것 (8절) ≡ ‘돌을 물매에 매는 것’ / 많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고통
- 4) 입의 잠언 (9절) ≡ ‘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’ /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위험
- 5) 미련한 자, 지나가는 행인 고용 (10절) ≡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 (표준 역)

4. 미련한 자의 절망적인 모습 (11,12절)

- 1)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함 (11절) ≡ ‘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’ / 동일한 어리석음 반복
- 2) 가장 미련한 자 (12절): ‘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’ (교만은 어리석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)

II. 게으른 자들 (26:13~16)

1. 게으름의 원인 (13절): 비정상적인 상상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두려움 (길, 거리에 ‘사자가 있다’는 핑계로 밖을 나가지 않음) 게으름을 고치려면 바른 생각과 용기가 필요
2. 실상 1 (14절): 침대에서 뒹굴고 있음 ≡ ‘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’
3. 실상 2 (15절): 어떤 일도 괴로워함 ≡ ‘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함’
4. 실상 3 (16절): 자신을 최고의 지혜자로 생각. ‘(지혜로운 자)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김’

III. 사회의 문제아들 (26:17~28)

1. 자신과 무관한 일에 참견하는 사람 (17~19절)

- 1) ‘길로 지나가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’ (아는 바 없이 무모하게 싸움에 개입) (17절)
≡ 개의 귀를 잡는 자, 자신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됨
- 2) ‘햇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’ (18절): 미친 사람.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 줌
- 3) ‘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(농담)하였노라 하는 자’ (19절)
: 미친 사람, 타인에게 동일한 고통을 안겨줌

2. 모함하는 사람 (20~22절): 남에 대한 험담, 소문에 현혹되면 공동체 전체의 평화가 붕괴됨

- 1) 계속 싸움을 부추기는 ‘말쟁이’ (20절): 남을 중상모략, 부분의 진실 통해 전체를 매도, 이웃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. 그가 없으면 다툼이 그침 (without gossip a quarrel dies down)
- 2) 다툼을 좋아하는 자 (21절) ≡ ‘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’
그는 말쟁이와 결합하여 싸움이 더욱 커지게 해서 이웃과 공동체를 재가 되게 한다.
- 3) ‘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의 말’ (The words of a gossip) (22절) ≡ ‘별식’ (맛있는 음식) ‘뱃속 깊은 데로 내려감’ (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평생 잊을 수 없게 됨)

3. 속이는 사람 (23~26절): 겉과 속이 다른 무서운 사람들 有. 현란한 말에 결코 속지 마라

- 1) ‘온유한(불타는) 입술에 악한 마음’ (23절) ≡ ‘낮은 은을 입힌 토기’ (가치 없음)
‘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베푸는 원수’ 有 (24절)
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마라 (25절) ∴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
⇒ 말이 유창하고 열정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 바른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함
- 2) 속이는 자의 악, 회중 앞에 드러남(26절) his wickedness will be exposed in the assembly.
속이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믿을 수 있는 회중과 의논하는 것이다.

4. 악인의 파멸 (27,28절)

- 1) (남을 해하려) 함정 파고 돌을 굴리는 자 (27절): 자신이 먼저 고통당함 (빠지고, 그것에 치임)
- 2) (남을 미워하여 해치기 위해) 거짓말 하는 자, 아침하는 입: 자신이 패망